

서울의 지천(2)-지천의 오늘

이 상 석·박 문 호

(순천대학교·서울시정개발연구원)

I. 지천의 현주소

인간생활은 물의 존재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문명이 발달된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사실은 크게 변치않고 있다. 물이라는 대상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에 대한 생각과 태도, 이를 결정하는 문화적, 사회적, 정신적, 시대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영국에서 유행했던 풍경화나 동양의 수묵화에서 필수적으로 수경이 그려지게 된 것도 동서고금을 통하여 “물이 있는 풍경”이 인간환경의 이상인 동시에 인간이 동경하는 자연의 주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고대시대부터 물은 생활용수의 공급원, 운송수단, 농업용수로 이용되어 인간생활의 바탕이 되어 왔다. 고대의 에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강 유역의 4대 문명을 보아도 물(하천)이 도시를 형성하는 존재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물과 하천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은 건국신화, 민속신앙, 문학활동, 일상생활과 여가활동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고대 건국신화에서는 강이나 물의 공통 모티프가 발견되는데 당시 물은 농경문화권의 상징이며 생명의 근원으로, 강은 신성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강에 대한 민속신앙에서도 물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인식되어 사

람이 죽으면 반드시 강을 건넌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강은 고대로 부터 국가가 행한 제사의 대상이 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명산대천의 제사가 춘추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강에서 기우제를 행했다는 기록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강은 주거생활과 생업의 바탕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예술적 측면에서도 인간에게 많은 계기를 제공하여 예로부터 많은 문인에 의해 시의 주제가 되었고 동양화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도시에 있어 물은 단순한 속성으로서가 아니라 물을 요소로 한 형질로서 존재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의 하천이다. 도시의 하천은 도시의 구성요소로서 강한 선적 흐름을 갖는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이밖에도 물을 소재로 한 연못, 폭포, 분수 등 인위적으로 조성된 수공간이 있지만 도시의 하천과는 규모나 도시요소로서의 역할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또한 도시의 남겨진 자연요소로서 자연성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지만 하천은 녹지와 더불어 도시의 푸르름을 제공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오늘날에는 도시가 인공화됨에 따라서 지하수와 지표수(하천)가 감소, 고갈되는 도시 사막화, 도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어 사람들의 환경의 질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환경오염과 도시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어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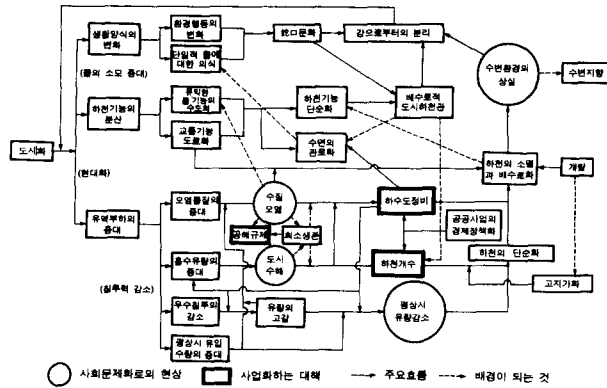


그림 1. 수변문제의 발생 흐름

운 빛에서 자연성이 높은 푸르름이 가득한 도시로 더 나아가서는 水色(친수)으로 보다 본질적인 환경의 모습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수공간이 급격히 사라져 가는 지금에 이르러 환경에 둔감한 현대인들도 인간의 생물적 본성으로 돌아와서 물에 대한 동경을 다시 생각해 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과거와 같이 농경, 운송의 기능보다는 경관성, 친수성, 도시생태요소로서의 물의 가치 증대가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수공간 회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물이 있는 풍경'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물을 포함한 생태계가 보전되는 건강한 환경의 질에 대한 본능적인 관심, 물의 푸르름으로 대표되는 인간환경에 대한 감각적인 관심이 뒤섞여서 여론을 형성해 온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서울은 정도 당시 산수가 매우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도시였다. 도성의 입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풍수지리의 원리가 도입되고 이중에 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능성과 상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높은 자연성을 가진 서울의 하천이 변화된 것은 오랜 시간의 상호작용 중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버림받고 오염된 지천이 된 것은 불과 몇 십년간에 발생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의 급격한 양적 팽창으로 서울시의

자연하천은 복개되어 도로, 상가, 아파트 등의 용지로 사용되는 등 원래 서울시 지천의 자연성과 아름다움이 크게 훼손되었다. 남아있는 하천도 오염되어 자연성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최근들어 시행 중인 도시 교통시설의 설치에 하천이 갖는 쾌적성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 지천의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의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변 문제의 발생 흐름을 살펴보면 (그림 1 참조), 오늘날 서울시 지천의 상황은 시민, 공무원, 계획가 모두의 지천에 대한 가치인식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지천의 오염과정은 복잡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 표피적인 대응과 문제위주의 해결보다는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자세가 요구된다.

지천의 가치는 하천의 기능이라는 측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천의 기능은 단순한 치수기능보다 이용기능, 환경기능, 경관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며, 하천 문제 역시 이러한 복합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하천관련사업은 대부분 하천의 치수적인 기능을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 물론 하천의 치수기능도 매우 중요한 상위의 기능이지만 귀중한 자연자원으로서의 복원 및 위락적 이용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지천이 본래의 기능

표 1. 하천의 기능

하천기능	내 용
치수기능	홍수의 배제, 물의 흐름 유지, 지하수의 공급 및 배제, 토사의 배제 등의 유수 기능
이용기능	이용기능농업용수, 상수도 용수, 공업용수를 위한 공급, 수문통로, 골재채취 등의 기능
환경기능	미기후 조정, 대기정화.수질정화, 지하수 함양, 수생동식물의 서식 등 자연생태적 기능
공간기능	교량, 지역분할, 통풍, 채광, 소음완화, 방재피난공간, 광장.운동장등의 공지기능
경관기능	공원, 수변산보, 수면 레크레이션 등의 친수기능

표 2. 서울시 하천현황

분류	한강																	
1차	중앙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북동천	면목천	관동천
2차	계곡천		정북천		정동천								화계천	가오천	대동천			
3차																		
4차																		
연장	41,510	19,300	3,670	5,100	11,940	2,727	3,323	590	6,100	8,330	2,800	2,016	1,600	3,029	1,900	1,850		
하폭	1,100	150	84	20	40	25	40	15	44	60	20	15	10	35	40	15		
면적	41,098,096	3,941,500	323,000	102,200	477,600	68,175	134,240	8,400	268,400	499,800	56,000	30,240	16,000	106,015	76,000	27,750		
복개	-	-	1,200	3,174	3,667	2,727	-	25	260	474	2,800	1,583	534	-	678	1,300		

분류	한강																		
1차	안양천						홍제천			봉원천		반포천		단천			성내천	고덕천	
2차	개화천		도림천		시흥천										양재천	세곡천			
3차		오류천		대방천	봉천천			봉광천	녹번천						여의천				
연장	14,370	3,200	4,670	14,200	7,400	5,150	2,050	11,950	8,790	2,220	1,250	3,770	7,470	8,320	7,900	3,330	3,140	8,220	4,580
하폭	220	80	40	65	30	27	10	50	60	20	25	30	35	230	90	20	25	70	55
면적	3,662,600	256,000	186,800	923,000	222,000	139,050	20,500	597,500	527,400	44,400	31,250	113,100	261,450	1,913,600	711,000	66,000	78,500	575,400	251,900
복개	-	-	1,183	1,155	7,288	5,150	2,050	1,026	2,940	2,220	1,250	770	3,170	-	-	-	-	1,560	-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1995

을 회복하고 자연상태복원을 통해 친수공간확대된다면 도시 오픈스페이스로서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시내 하천의 유로면적(하천 내안면적)은 총 57,815,670㎡로 한강유로면적 41,098,960㎡를 제외하면 지천 유로면적은 16,716,710㎡이다. 이중에 복개구간이나 고가도로에 의해 점유되는 2,196,670㎡를 제외할 경우 지천 유로면적은 14,520,040㎡이다. 한강의 경우 유로면적(41,098,960㎡)에 대한 공원면적(6,930,960㎡)은 약 17%의 비율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지천 유로면적(14,520,040㎡) 중 2,468,000㎡의 공원화 가능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특히 지천은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별로 부족한 공원녹지를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서울시 지천의 현황 및 문제점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활동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연상태 그대로 있던 지천의 모습은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현재의 지천의 활용에 대한 접근방식은 치수기능이나 이수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비되거나 개발되어 왔으며 지천의 환경적 기능과 위락적 기능은 소홀히 하여 왔다. 하천의 기능에 대한 요구가 사회 및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만 오늘날과 같은 단순한 기능만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의 정비나 관리는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하천에 대한 정비 및 관리는 치수, 이수만이 아니라 도시의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환경기능, 위락기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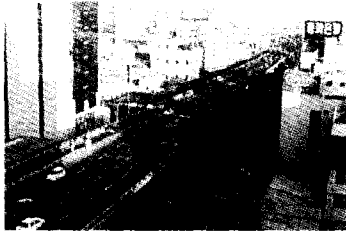


사진 1. 지천(청계천)의 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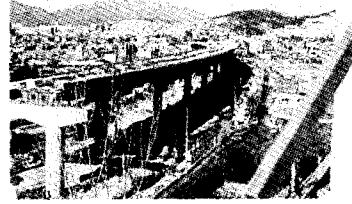


사진 2. 지천상의 내부순환도로 건설

부분적인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 지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천을 단순한 도시시설의 대체재로서 인식하여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복개하거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하천부지의 시설점용 문제이다. '80년대 이후 폭발적인 교통량 증대로 심각한 도시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및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설을 위한 부지로서 하천은 경제성이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하천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소하천들은 복개되었으며 폭이 넓은 하천변 부지에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시간선도로 등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사업의 배경에는 하천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토지보상비용이 적고 시공이 용이하다는 인식과 주변의 지가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 추구라는 하천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둘째는 하천의 수질 및 유량의 문제이다. 도시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본래의 오픈스페이스로서의 환경생태적인 공간보다는 악취와 쓰레기가 집적되는 버려진 환경위해시설로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어 1차 지류에 해당되는 중랑천, 안양천, 홍제천의 경우 수질이 불량하고 유수의 색이 탁하며 냄새가 나는 등 전반적으로 하천수질기준 V급을 밑돌고 있으며 자정능력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유량이 적은 봄과 겨울철에 심하다. 하천주변의 오염은 현재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할 통해 관리하고 있지만 하수의 많은 부분이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아 하수관리체계의 정비야

구된다. 또한 유량의 부족도 하천공간의 기능과 하천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공간은 포장되어 강우시 우수가 단시간에 유출되고 지하로 침투되는 침투수가 거의 없으며, 하천수의 주요 공급원인 지하수도, 지하철 등의 각종 지하시설로 인하여 차단되는 상황이므로 하천의 유량은 계절별로 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강우가 적은 겨울철이나 봄철의 경우 하천의 유량은 절대적으로 감소하여 하천의 기능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봄과 겨울철의 건기에는 중랑천이나 안양천과 같이 유역이 넓은 1차 지류인 경우에는 다소 유량이 있지만 상류의 소하천에서는 수원이 고갈되고 건천(乾川)이 되어 자연생태적인 기반을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지천의 유량을 확보하기 위해 댐에서의 도수, 지하수 개발, 가동보의 설치 등의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지천 외부공간의 수원함양능력의 향상(우수저장 및 이용시설이나 유출계수의 저하)과 지천내부에 자연형 하상의 정비와 지천생태계의 복원방식을 도입하여 지천 스스로의 수원함양능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는 지천과 주변지역과의 상관성을 고려한 계획의 부재이다. 지천과 주변지역의 관계는 지천의 수질과 수량, 그리고 경관, 이용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은 하천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어 하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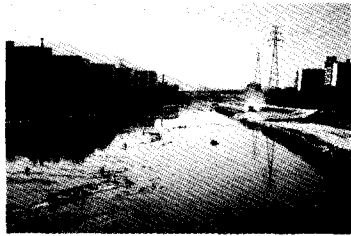


사진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천(중랑천)



사진 4. 지천(당현천)의 건천화

과거 지천 주변은 주로 농경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졌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천변에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랑천의 경우 상류는 대부분 고층 주거지역, 중류지역은 저층 주거지역, 하류는 공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안양천 주변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주민들의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우안의 구로구와 영등포구는 대부분 공업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하천변은 주거·공업·상업지역이 혼재되어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기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하천과 하천유역의 관계를 설정하고 하천공간의 이용도 주변 특성을 고려한 이수, 환경, 위락적인 측면에서의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는 지천변 고수부지의 이용의 단순성과 접근성의 제한이다. 지천에는 그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 구간에 걸쳐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고수부지의 폭이 넓어진다. 지천변 고수부지의 이용실태를 보면 시민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는 지역주민에 의해 야채밭으로 경작되거나 낚시터로 이용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일부구간에는 공원계획에 의해 운동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최근들어 한정된 공간에 자연생태적인 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조성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이용이나 계획적인 이용으로서 운동공간이나 위락공간, 부분적인 자연생태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현상은 기존의

방치상태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고수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지천의 선적인 흐름을 고려한 상류부와 하류부간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고려한 공간의 조성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하천변 공간은 높은 제방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홍수시 치수를 위해 별도의 접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개방성이 확보된 하천일지라도 하천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이나 연계적인 보행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하천공간은 주변지역의 이용자로부터 격리되어 공간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성의 문제는 지천공간에 대한 시민의 친수성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차단하고 있어 지천공간의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천공간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과 적절한 연계를 이루는 자전거도로와 보행체계가 결합된 복합적인 동선체계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접근기회를 늘리기 위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주변의 공원이나 녹지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하천경관의 문제로서 현재 하천경관을 구성하는 하천시설(교량, 배수시설, 치수시설 등)과 하천주변경관의 경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천의 친수공간으로의 개발에 제약이 되고 있다. 하천의 일부 구간에는 보차교, 인도교, 철교, 입체교차로, 수중보 및 낙차공, 하수관로 및 우수관로, 반복개교 등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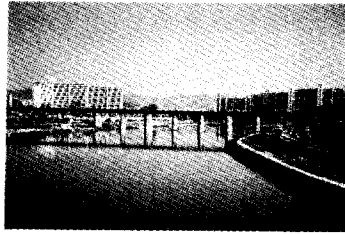


사진 5. 채전으로 일구어진 고수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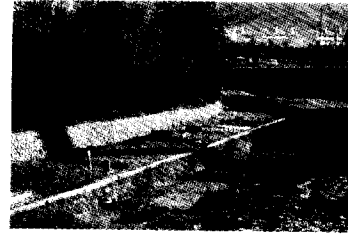


사진 6. 지천(성내천)에의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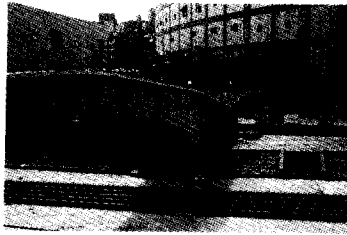


사진 7. 교량이 걸려있는 지천(중랑천)의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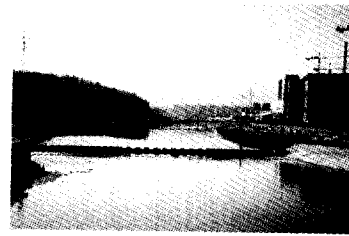


사진 8. 아파트 단지로 막힌 지천 경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들어서의 하천변 고층아파트의 건설은 하천주변경관을 가로막아 경관의 개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공간으로부터의 경관과 하천공간으로의 경관의 개방성을 높이고 특히 하천변의 교통시설과 자동차로부터 하천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내외적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관리방안, 하천경관의 이미지 창출과 독자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하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기술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의 부재이다. 훼손된 하천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복원기법은 하천공학, 생태학, 조경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의 복합적인 노력에 의해 강구되어야 한다. 단순히 본래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생태요소를 도입하여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하천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체계 차원의 복원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하천생태계의 복원은 하천의 환경기능을 강화하여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되살리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첫번째, 수동적인 방법으로서 인간의 간

섭을 최소화하여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재조정되도록 내버려 두는 방식과 두번째는 특정한 복원기법을 적용하여 생태계의 복원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의 복원은 후자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천의 생태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하천수질의 개선과 적정유량의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또한 하천생태계가 가지는 특성으로서 개방성, 연속성, 주변과의 연계성, 불안정성, 다양성을 고려한 생태복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하천의 특성상 계속적인 하천수의 이동에 따른 하천지형의 미세한 변형에 부합되는 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에 의해 수로의 방향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로내부의 토사 유동과 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미지형의 변화, 웅덩이나 여울 등의 형성과 이러한 미세한 지형요소의 하천생태계내에서의 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생물의 서식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 또는 창출하기 위한 자연생태적 조성방

법은 본래의 하천이 갖는 특성과 자연환경, 생태계에 대한 조사, 연구, 모의실험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시공법과 시공재료의 개량,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하천이 갖는 수리적인 역동성과 하천의 생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수리적인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유속분포, 세굴 장소, 세굴 깊이, 토사의 이동, 퇴적층의 형성, 웅덩이, 연못, 여울 등의 하천의 유형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지형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저생동물, 식물, 조류, 곤충류, 양서류, 포유류 등의 서식생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지표종을 선정하고 그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사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 하천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합한 복원 및 관리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3. 오늘의 지천의 재해석

서울의 지천의 물은 먹을 수 없는 물, 생물이 살지 못하는 물, 들어 갈 수 없는 물, 수목과 어류가 살지 못하는 물이며, 이를 보상이나 하듯이 도시공간의 곳곳에 물을 펌프로 순환시켜 만든 분수 등의 수공간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생활과 거리가 먼 친수공간의 디자인이 성행하는 것은 “수계시스템으로서의 물, 에코시스템 속에서의 물”이라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계의 측면에서 보면 계획가는 실로 물의 본래적인 사용을 생각해야 하며 동시에 오늘날 하천이 갖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이상적인 친수공간은 “마시고 싶고, 물에 들어가 보고 싶고, 목욕하고 싶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수질)이어야 하고, 맨발로 수중을 걷고 싶고, 물밀의 돌맹이를 줍고 싶고, 진흙 빨도 쓰레기도 위험물도 없는 하천바닥과, 물가 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변화가 있는 물가의 형태, 자연적인 모래자갈과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맨

발로 모래자갈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수변, 하천 연변의 넓은 물과 녹지의 공간을 느끼고 제내외지 가까이 인간들의 모습이 접재되어 있는 수목으로 덮인 수경을 이루고, 수계와 녹지계통의 자연적인 축으로서 도시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하천 등 살아있는 물, 움직이는 물” 이어야 한다.

하천은 여러가지 모양의 모자이크 속에서 한 줄기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하천은 빌딩 숲의 수직적인 요소 중에서 유일한 평면적인 넓이가 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하천은 회색 일변도의 인공도시 속에서 유일하게 평면적인 넓이를 갖는 수목과 생물이 살 수 있는 자연공간이다. 도시의 구조체계, 도시생태체계, 생활공간체계의 구성요소로서 도시의 인위적 공간과 대비되는 하천은 도시라는 메마른 구조물에 생기를 불어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자연요소간의 통합과 도시인을 위한 개방성 있는 공간으로서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강 하변 서울하는 식으로 하천의 이름은 지역을 대표하고 수변이나 천변에서는 그 지역의 생활상을 읽을 수 있다. 하천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의지적인 것이다. 지금도 하천은 그 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인공구조물로 채워진 도시에서는 과거 이상으로 자연요소로서의 하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오염된 하천에 대한 복원과 본래의 모습으로의 재현이라는 하천 자체적인 변화와 하천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서울시 지천은 결코 치수적인 기능만을 고려하여 제방을 정비하고 도로를 위한 유보지로서 활용되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전시적인 사업만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하천의 특성상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식 아래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공공과 여러분야의 전문가, 특히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